

# 추석 지나도 물가 걱정... 채소·가공식품 '줄인상'

이상기후에 시금치 등 가격상승 배추가격 폭등에 김장물가 '비상' 카레·햇반·김치 등 식료품도 인상 자영업자 "소비 위축에 영업부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난 여름 치솟기 시작한 농산물 가격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채소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유통사의 추석 할인 지원도 종료돼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배추·무 등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경우 김장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광주지역 배추 1포기 가격은 8660원을 기록했다. 이는 7133원이었던 지난달보다 21.41%, 6193원이었던 지난해보다 39.84% 높은 수치다.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 7923원과 비교하면 9.30% 상승했다.

지난 20일 기준 열무 1kg 가격은 6307원으로 연휴 전인 지난 13일 5307원보다 18.84% 올랐다. 이는 전월(4973원) 대비 26.82%, 전년(3760원) 대비 67.74% 오른 수치이며, 평년(3509원)과 비교하면 무려 79.74% 상승했다.

올여름 전년 대비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던 시금치와 무 가격은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평년 대비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탓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올랐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기준 광주지역 무 1개 가격은 4495원으로, 5000원이었던 명절 전과 비교하면 10.1%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전월(3868원) 대비 16.21%, 전년(2350원) 대비 91.28% 상승한 수치다.

시금치도 같은날 기준 100g에 4277원으로 5060원이었던 지난 11일과 비교하면 15.47% 하락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년(1803원)과 비교하면 137.22%, 평년(1532원)과 비교하면 179.18% 올랐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근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며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달 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최대 15% 올렸다. 순후추(50g)는 4845원에서 5560원으로 15% 올랐고 토마토케첩(300g)은 1980원에서 2100원으로 6% 인상됐다. 지난 1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분카레, 3분 쇠고기카레·짜장 가격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0% 올랐다. 'CJ제일제당'은 냉장 가정간편식(HMR) '햇반컵반' 제품 중 4종을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상향했다. 흰쌀 햇반을 현미 햇반으로 바꾸면서 편의점 판매가를 4800원으로 600원(14%) 올렸다.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업체가 유제품·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했다.

포장김치 가격도 올랐다. '대상'은 지난 1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증가맛김치 가격을 6.7~12.3% 올렸다. 증가맛김치 50g은 기존 1000원에서 1100원(10%)으로 올랐다. 맛김치 80g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6.7%), 맛김치 900g은 1만3000원에서 1만4600원(12.3%)으로 비싸졌다.

주부 박모(56)씨는 "명절 연휴를 마치고 김장 전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소량 구매해 두려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봄에는 5000원가량에 판매했던 동일한 양의 배추김치를 구매하려면 1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등 반찬가게에서 판매하는 김치 가격이 두세배 올랐기 때문이다"며 "결국 마트에서 오이와 부추를 구매해 배추김치 대신 직접 오이김치를 담고 온라인쇼핑몰에서 '포장김치'를 구매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이어 "당분간 직접 만들거나 반찬가게에서 판매하는 배추김치를 맛보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곧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배추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은 물론 식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금호동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원래 이맘때면 배추 가격이 비싸져 식자재비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선택하게 된다. 반찬을 사러 왔다가 '너무 비싸다'며 그냥 돌아가는 손님도 있고 배추김치 대신 부추김치 등을 사가는 손님도 많다"며 "명절 직후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안 그래도 매출이 좋지 않은데, 반찬 가격이 인상되면 영업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이 명절을 맞아 진행된 정부 지원 할인행사가 종료된 요인도 있다고 보고 배추의 경우 오는 10월2일까지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이티비티샵'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6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대구 동성로의 유명 소품샵인 '이티비티샵' 팝업 행사장을 운영한다. 이티비티샵은 고객이 원하는 키링 인형에 본인이나 원하는 액세서리와 옷을 입혀 나만의 키링 인형을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팝업 행사 기간 동안에 이티비티 래빗, 베어의 키링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기 캐릭터에 옷을 직접 선택해 입혀보는 체험존과 옷을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색칠하는 드로잉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은행 "전통시장 금융범죄 피해 예방 나선다"

남광주시장과 '장금이' 결연식 상인회장 5명 금융보안관 위촉

광주은행은 최근 남광주시장 상인회에서 '장금이 결연 및 금융보안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사기 예방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황인협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손승기 남광주시장 상인회장 및 광주·전남 주요 상인회장들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주관

하는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이다. 지난해 8월 말바우시장·대인시장·순천 우장·목포 자유시장과 결연에 이어 이번 남광주시장과 신규 결연을 통해 금융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구성원 간 연속력을 다지는데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연식에 이어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진행했다. 금융보안관으로 위촉된 5명의 광주·전남 주요 전통시장(남광주시장·말바우시장·대인시장·순천 우장·목포 자유

시장) 상인회장들은 소정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전통시장 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김은호 부행장(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예방 관련 교육 및 금융상담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소상공인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통시장과 광주은행에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전남중기청, '지역 스타트업 IR 캠프' 마련

광주·전남·제주 창업기업 지원 투자전략 수립·IR 기회 등 제공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광주·전남·제주 창업지원 유관기관 및 지역 창업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통합 IR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존재하는 창업기업 투자 격차를 줄이고 광주·전남·제주지역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업패키지사업,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창업사업에 선정된 44개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올해 IR캠프는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시, 전남도, 제주도과 지역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1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투자사 16여명이 참여, 창업기업의 성장 및 투자전략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주제로 선배기업의 창업 및 투자성공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3일부터 24일 이틀간 광주·전남·제주 창업지원 유관기관 및 지역 창업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통합 IR 캠프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노하우 공유특강과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에 맞는 투자사와 연결해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했으며 둘째 날에는 IR 피칭대회 및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IR 피칭대회를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후 우수기업 8개 사를 선정해 상장을 수여하고, 행사 이후에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창업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번 IR캠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미래 성장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창업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창업기업 지원과 창업 생태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광기술원, 체코 포토닉스연구소·기업과 협약

학술정보 교류·연구 등 협력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포럼'에서 체코의 포토닉스·전자연구소 및 메우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토닉스 및 광학 소재·부품 기술 전반에 대한 인적자원 교류,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포토닉스·전자연구소는 체코를 대표하는 포토닉스 분야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고, 메우타는 광학 소재·부품 분야의 체코 최대 규모의 기업이다. 체코는 구소련의 광학기술이 유입되면서, 소재·광학·레이저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포토닉스 기술 강국 중 하나이다. 향후 체코의 포토닉스 소재 및 광학분야 원



천기술과 한국의 포토닉스 모듈·시스템, 제조기술의 강점을 연계해 양국 간 포토닉스 산업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포토닉스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광기술원과 체코를 대표하는 연구소 및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의 공동연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